



전종귀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명예교수

충남지역의 해양레저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지역의 해양레저 · 관광은 활성화되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실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당진, 보령, 서산, 서천, 태안, 홍성 등 6개의 충남연안지역 지정관광지 방문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4.83%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천군과 태안군의 경우는 각각 연평균 10.67% 및 12.91%씩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지역인 보령시의 경우도 연평균 3.72%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의 향상이나 여가 증대에 따른 관광 수요증가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방문관광객 수의 감소는 관광분야 침체나 정체현상과 함께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충남지역은 현재 요트, 크루즈를 비롯한 선진형 해양레저 활동이나 관련 산업의 수요가 크지 않다.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 여가 문화 확산 및 관광육구 증대 등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에서 심리적 피로감이 큰 현대인들은 힐링(healing)에 대한 관심이 많고 웰빙과 관련된 감성적인 소비행태를 선호한다. 관광의 경우도 차별화나 고급화 소비를 추구하고, 경험과 감성을 중시하여 요트, 크루즈 등 직접 체험형 해양레저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대적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정책도 해양레저 · 관광 활성화에 집중되고 있다. 2010년 국토해양부는 제 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확정 · 고시하고 전국 47개의 마리나를 추진 중이다. 충남지역에도 석문, 오천, 보령, 홍원 등 4개 지역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돼 충남 해양레저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2013년 해양수산부는 국민 힐링 해양공간과 쾌적한 어



춘조성과제로 해양어촌관광인프라 구축 및 연 70만명을 대상으로 해양데저스포츠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지역경제의 싹틔줄이 되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국민 참여형 해양문화 교육기반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14-18년)에 의거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미항 개발사업, 어촌의 역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결과와는 다르게, 충남 연안지역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해양레저 시설, 장비, 프로그램, 지도자 및 서비스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요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마리나 항만 등 SOC가 부족하며 요트, 보트, 윈드서핑 등 마리나 선박 및 서비스 요원이 부족하고, 다양한 크기의 크루저 등 고급 해양레저·관광객을 수용할 거점 항만 및 도시가 미흡하다.

이에 더하여 요트, 크루즈 등 고급해양레저관광의 미래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인식부족과 과도한 규제에 의한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시도의 난항, 해양레저·관광 가능 공간 및 시설 등도 부족하다. 해양레저에 대한 홍보 부족과 계절적 편향성 극복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렇듯 충남지역의 취약한 해양레저 산업기반을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의 선진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된다.

첫째, 마리나 항만 등 SOC의 경우 안전, 환경, 예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존 시설의 보수와 과감한 투자, 해양레저 이외의 편의 및 위락시설 등 부대시설의 공간정리 및 확충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신규 시설의 경우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추진 정책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항지 매력 포인트를 가진 거점항을 선정하고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해양레저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리 및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동일한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할 경우 매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충남연안 지역의 특성을 살린 모험형, 스포츠형 해양레저가 선호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상인 홍원항, 석문항, 오천항, 보령 등에서는 마리나 구축을 통한 요트, 보트 등 마리나 선박 이용활동이 가능하다. 태안 및 서천의 송림지역에서는 캠핑, 도보여행과 인근 해역에서는 덩기요트, 윈드서핑 등이 가능하다. 또한 격렬비열도 등 무인도와 외연도, 호도, 녹도 등 외곽 유인도서를 연결하는 아일랜드 요트투어 등도 가능하다.

셋째, 지도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해양레저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자체의 경쟁력이 되며 이는 지도자의 전문성과 비례한다.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은 전적으로 지도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대학교 및 보령해양레저스포츠학교 등을 통한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계절적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 해양레저의 경우 해양 및 그 근린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하절기를 제외한 계절에는 이를 대체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다. 해안 배후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해안트레킹, 서바이벌, ATV 등 매력적인 관광프로그램을 확충하거나 레저보트나 요트 생산, 수리 등 조선관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계절적 편향성도 극복할 수 있다.